

## 성화 미: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출3:12-15

지금까지 13년 동안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설교하고 강해하였다. 2000편 이상, 설교, 모든 노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목사가 알려주어야 할 것들의 대부분을 알려줌 사도 바울의 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려 한다(행20:27).

지난 6년 동안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교정 작업, 모든 것이 끝나가는 이 시점 앞날의 목회 생각

요즘 들어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목사들의 성추행 소식, 지금까지 30년간 성경 신자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형편 없는 모습, 그렇게 KJB 운운하더니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일반 교회, 심지어 교회를 안 나감 왜 그럴까? 1. 목사의 능력 부족, 2. 혹시 구원받지 않아서, 3. 워낙 자아(육신)가 강해서 여하튼 요즘 들어서 실감하는 것,

믿는 것의 핵심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산다”, 구원 이후 변화하는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한다. sanctification. 그래서 성화에 목표를 두고 성경과 귀한 목사님들의 책들을 참조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는 것(동화되어 가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골3:9-10,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갈4:19,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 분야에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최대한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치려 한다. 처음 2-3주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성화는 거룩하게 사는 것,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 하나님

God, 4,078번, Lord 5,000번, 성경 전체에서 적어도 10,000번 이상 하나님이 언급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대다수 신학자들, 성도들이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그 존재가 속한 부류를 알아야 한다.

개, 무언가가 머리에 떠오른다. 개과에 속한다. 늑대, 여우, 수많은 종류의 개들 그래서 우리는 개에 대해 웬만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영이시다. 온 우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대의 존재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실재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정하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창1:1, 창조자, 주권자, 그러나 그분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 뒤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세상관과 인생관의 기초가 되는 분이지만 그분의 실재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바보이다. 너무나 당연하므로

어리석은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시14:1).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악한 자(시10:4)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지식을 억누르는 자들도 있다(롬1:18).

히11:6,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하튼 무한하신 하나님을 단두 단어, 구절로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은 심히 독특하신 분이시다(사40:25-26).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분에 대해 묘사한다.

어떤 진술(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그분의 이름(여호와 이레, 샬롬, 니시) 등을 통해 나타난다.

###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세 가지 진리

1.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2. 영적 존재이시다. 3. 거룩하시다.

1.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우리 주변을 보라, 남편, 아내, 친구, 자녀들, 선생님 다 인격체, 1. 일단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경우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출3:13-15; 6:3; 사42:8).

2. 모든 인격체의 특징: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 유지자, 이교도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3.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의 모든 일을 기적과 섭리로 인도하신다.

4. 성경은 그분을 아버지(Father)라고 말한다. 260회, 인격적이다.

예수님: 그분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문자 아버지 259회가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일 중 하나, 인격체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가 하는 일: 집안 유지,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마5:45; 6:26-32), 해와 달과 별, 분과 비, 날짐승, 꽃, 인간 모두 유지하신다.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역시 인격적이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은 지적 설계자, 모든 것의 근원, 어머니 지구의 근원 같은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2.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God is a spirit.

영이라는 말은 권능(힘, 다이너마이트)과 활동을 뜻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 비해 하나님은 무한대로 뛰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사람이나 짐승을 육체(flesh)로 표현한다. 육체라는 말은 힘이 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천사는 영이다. 왕하19:35, 주의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185,000명 살해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무한대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다(시36:9, 요5:26).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욥33:4; 시104:30).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물리적인 한계가 없다. 우리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다(출20:4).

영이시므로 무소부재, 사람이나 어떤 창조물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

보이지 않으시며 모든 생명체에게 살아 있는 생명과 힘을 주는 존재이다.

3.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사40:25).

창조 세상과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뜻이다. 즉 창조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창조 세상 밖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사57:15).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창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주 공간의 창조 이전에 계시며, 지구든 우주든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왕상8: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이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다만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를 위해 마치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것처럼,  
눈, 입, 손을 가진 것처럼 표현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Immanence)이다.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시간 안에 계신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없다. 이것이 잘못되면 범신론이 된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미래 모습에 대해 말하려 한다.

### 하나님의 자존성(Aseity)

스스로에게 충분하다.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17:24-25, 28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그분의 자존성 때문이다.

오늘 출3장 본문,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뒤 40년 지남,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 떼를 차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봄(2), 왜 타지 않는가?(3)

모세를 부르심(4), 거룩한 곳(5), 하나님의 신분(6), 내가 할 일 이스라엘 구속(7-8), 내가 노를 보내겠다  
(11). 이집트를 탈출해라.

모세의 대답(13):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가서 그 일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내게 명령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창4:26). 그런데 지금  
모세는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르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므로 존재하는 자다.

영원 전에도 I AM, 지금도 I M, 미래에도 I AM.

자존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에 관한 그분의 자존성이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시간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마음대로 시간 안으로 들어와 개입하실 수 있다.

왜?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것, 지금부터 6000년 전쯤에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맺고 있는 관계와 하나님이 시간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다르다.

우리,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 일을 이루지 못한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 흥미를 잃는다. 지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무관하시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지루해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한계가 없다.

그 결과

1.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다. 2. 변하지 않는다. 3.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I AM(출3:14),

이런 분이 바로 영원한 분이시다.

Before Abraham was, I am,

2. 하나님이 자존하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구원을 받지 않는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엡2:8-9).

바울의 기도(롬11:36)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

요3:16,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

시간에 무관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시간에 무관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시간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

벧후1:3-4, 3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4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3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4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선하심(Goodness), 모든 선한 것의 기준

은혜로우심(Graciousness)

불변하심(Immutability)

전지전능

무소부재

의로우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현실이다.

#### 결론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고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화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

그것이 성화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자로서 지금 이 시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같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